전남도 대규모 인사 앞두고 '술렁'

명퇴·공로연수·중앙전출 많아 이동폭 클 듯

연쇄 승진 기대에 후보자 비방·악성 소문까지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전남도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중앙부처 전출 등으로 이동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전남도는 27일 명예퇴직 신청자와 중앙부처 전출, 장기교육 파견에 따라 부이사관(3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예고했다.

현재 이종범 기획조정실장(2급)이 지난 15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부이사관인 김동현 경제산업국장의 행정안전부 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부이사관급 1명의 명예퇴직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서기관(4급)급을 포함하면 인사폭이 더 커진다.

당장, 홍경섭 나주 부시장, 이광택 구례 부군수, 윤상복 장흥부군수, 임정환 진도 부군수가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만큼 새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평(박윤식 부군수)의 경우 3년 연임으로 교체가 거론되는가 하면, 신안(문동식 부군수), 해남(이재철 부군수) 등도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도청 내 명성인 전남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희 산림소득과장, 안용찬 세무회계과장, 박종균 전남도의회 전문위원, 김한유 해양생물과장도 내년 초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서기관급만 놓고보면 10명의 교체 요인이 생기는 셈으로, 부이사관이나 이사관까지 포함하면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전남도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연쇄적인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모임이 잦은 시기에 인사가 예고되면서 부군수 자리를 노리고 부쩍 출장 횟수가 잦아졌다는 등 대상 후보자를 겨냥한 비방성 얘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악성 소문마저 떠돌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F1대회운영법인 카보(KAVO)의 박원화 대표도 임기 1년 만료를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박종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선임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시·군 정책간담회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박준영 지사와 배용태 행정부지사가 도내 22개 시장·군수들과 내년 도정 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민·공무원들이 뽑은 올해의 빅뉴스

'영암 F1 대회 성공 개최'

전남도민과 이 지역 공무원들은 올해 전남도정 최대 뉴스로 영암에서 열린 'F1대회 성공 개최'를 꼽았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 공무원 등 총 1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전남도정 10대 뉴스'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F1대회 성공 개최'를 561명(50.7%)이 선택해 올해 '빅 뉴스'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한미FTA 통과로 전남 농축산업 직격탄'이 498명(44.3%), '내외국인 행복마을 한옥매력에 푹 빠져' 479명(42.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착착' 450명(40.1%) 등이 선정됐다.

또 '전남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국 최다 선정'433명(38.6%), '구제역 청정 유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메카 우뚝'396명(35.3%) 등도 함께 뽑혔다.

이외 '신안 갯벌 소금박람회 개최', '전남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학교 급식 점령','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남 수산물 인기 급상승','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등이 올해의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순천 '한옥 독일마을' 투자협약 체결 김화중 前 장관

"고향 그리워하는 교민들에 '행복 정착촌' 선사"

순천에 '한옥 독일마을' 조성〈광주일보 27일자 1면〉을 추진중인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3년 전 독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교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감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청을 찾은 김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초 '독일마을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지역 언론에 글을 실은 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제야 첫 발을 뗐지만 성공적으로 조성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순천시 옥천동 산 11-1번지 일대 20만㎡에 2013년까지 한옥 250세대를 짓고 독일문화원과 연계, 한·독 문화예술거리, 아트테마·복합문화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도 열악한 순천 지역에 25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한옥마을을 짓는데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100가구는 너끈할 것"이라며 "분양받으려는 교민을 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미 재독간호협회 임원단과 독일 호남향우회장단이 지난 10월 순천을 방문,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그는 "4만여명의 독일 교민 중 전라도에서 독일로 건너간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다, 이들 대부분이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왕 고국에 정착할 생각이라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렴한 분양가격, 따뜻한 남쪽에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 전남은 더없이 좋은 조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교육기부'를 통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달 말 시작하는 분양 과정에서 교민들의 동의를 받겠지만 5평짜리 방 2개를 내주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자는데 선뜻 수락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로 건너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교민들이 다시 고국을 찾는 데는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순천 지역을 찾았던 독일 교민들도 독일장학회를 만들자는 제안에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고 교육의 질도 뛰어나다"면서 "똑똑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지역 인재들을 선발, 독일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장래 독일과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은퇴자들을 위한 도시 조성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면서 "이러한 교류가 돈독해질수록 독일 기업들을 전남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돼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F1대회 지원 조세특례법 국회 상임위 통과

F1(포뮬러원) 대회 개최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F1 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F1대회조직위원회(F1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와 F1 조직위가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했다. F1 조직위·자치단체·대회시설의 시공자가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도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F1대회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1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개최하므로 세제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F1대회 조세특례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내년 대회부터 2016년 마지막 대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회의장실 前비서 디도스 공격 공모 영장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보선 당일 이뤄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구속)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던 경찰 수사결과가 뒤집혀져 부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장실 비서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디도스 공격의 윗선과 배후의 실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 비서가 구속된 최구식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 연말 500억 집행

전남개발공사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공사비 등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 사업장은 공동혁신도시 조성공사 1-3공구 전기간선지중화 사업 부담금, 건설폐기물처리 등 164억 원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38억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여수 화양~적금 연도교 착공…여수~고흥 20분이면 OK

차량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수와 고흥이 오는 2019년부터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7일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적금리 구간을 연결하는 '화양~적금 도로건설 공사' 구간의 핵심인 해상 교량 공사 4개 구간을 올해 말과 내년 초 잇따라 착공한다고 밝혔다.〈위치도〉

총 3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8.4㎞를 4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추진,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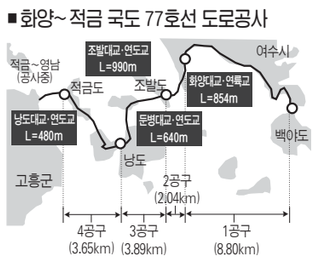
1공구는 육지측 여수 화양면 약 8.8㎞, 2공구는 화양면 장수리와 화정면 조발도 사이 2.05㎞, 3공구는 조발도~둔병도~낭도를 연결하는 3.9㎞, 4공구는 낭도와 적금도를 연결하는 3.65㎞로 구성된다.

2003년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화양면과 백야도를 잇는 백야대교가 아치교로 완공됐고, 돌산도와 화태도를 잇는 돌산~화태 연도교와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적금~영남 연륙교는 현재 시공 중이다.

오는 2019년 화양~적금 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순천만으로 우회할 때 1시간여 걸렸던 여수~고흥 구간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돼 지역민들의 불편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김일평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여건 개선으로 관광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화양~적금 국도 77호선 도로공사



ARS로 이웃 사랑을 060-700-1212 〈한통화 2000원〉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

호주국립대 1+2 학사과정
CSU, QUT Charles Sturt University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신입생 모집
과정소개
1학년 국내과정(본원) – 1학년 전공 학점 이수 + EAP영어
2학년 해외과정(호주 국립대학) – CSU, QUT 2학년 입학
3학년 해외과정(호주 국립대학) – CSU, QUT 3학년 학사학위 수여
전형일정(홈페이지 참조)
가. 전형장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5층
나. 전형일정 : 홈페이지(www.ducsi.ac.kr 또는 www.csu.me) 참조
지원자격(수능성적 및 내신무관)
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나. 호주학생비자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학상담 02-2260-3333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전산원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동국대학교 캠퍼스 내)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

경매투자
◆ 경매 배우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빙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